

테마칼럼

이성체제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칼럼

한화감의 '한·민 공조', 호남 동의 부터 구하라



김행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현(주)넥스트 투자 고문>

만약 그가 호남의 동의 없이 혼자 '마이웨이'하는 것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자민련 신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민주당을 확인 사살하는 꼴이 될 것이다.

가을바람은 정치권도 예외가 아닌가 보다. '한·민 공조'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 강재섭, 김무성 의원의 서진행보에 이어, 19일 광주를 방문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면 좋겠다."며 공개 구혼했다.

사실 한나라당에선 일찍부터 통합론이 있었다. 정형근·안택수·홍준표 의원 등이 "한나라당은 대권, 민주당은 당권 식으로 분리해 통합해야 한다."며 "정권탈환에 이보다 더 좋은 카드는 없다."고 속내를 드러냈던 것이다. '대권 삼수'를 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 절박함이 묻어난다.

급기야 열린우리당이 발끈했다. 민병두 의원은 '정치적 매춘행위'라며 일갈했다. 밀월을 들킨 듯 민주당도 화들짝 놀란 모습이다. 유종필 대변인은 "러브콜 받은 것도 죄가 되나"며 받아쳤다. 마치 남녀간 삼각관계를 보는 듯하다.

남녀간 삼각관계 보는 듯

그런데 민주당 한화감 대표의 태도를 보면 러브콜을 받기만 한 순진한 처녀모습이 아니다. "사안별 정책공조는 가능하지만 통합은 없다"며 일단 내용은 떨었지만, "한나라당과 '정치적 공조'가 이루어지면 '연립'이나 '통합'도 가능하다"고 피리도 쳐냈다. 속셈 뻔한 전술이다. 그래도 눈 딱 감고 속고 싶다. '한·민 공조'로

인해 진정한 동서화합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동서간 역사적·인간적 화해와 용서, 권력 공유를 통한 갈등 치유,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지역갈등은 옛말이 될 지도 모른다.

요는 한 대표의 마음이 순수한가 하는 점이다. 그는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당도 한화감계와 비(非)한화감계로 갈려 있다. 최근에는 당내 세력분포에서 비한화감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조순형의원이 당선되자 민주당의 포커스는 조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대표 한때는 고건 총리에게 구애를 하더니, 이제는 한나라당과 밀애를 즐기고 있다. 고건 총리의 회망연대를 '구망(舊望)연대'라고 몰아붙이면서,

도대체 그의 속셈은 무엇일까. 혹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줌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겠다는 알뜰한 계산은 아닌가. 그는 "좋은 길이라면 한·민 공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가 말하는 좋은 길은 무엇인가.

조순형 의원 말따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창당연혁이나 인적구성, 지역기반이나 정책이념, 노선이 확연히 다르다. 그렇다면 소속의원들에게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호남유권자들에게 물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사과는 충분하냐고? 이제 화해의 준비가 됐나고? 역사가 다른 양당이 통합해도 되나고?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주겠나고?

민주당은 사당(私黨)이 아니다

민주당은 한대표의 사당(私黨)이 아니다. 반세기 역사의 정통야당이다. 민주화운동의 산역사다. 반드시 양당이 통합해야만 동서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냉정히 말해 양당통합과 동서화합은 별개 문제다. 동서화합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은 피해자에게만 있다.

그는 고민해야 한다. 자신을 죽여서라도 민주당을 살려내 한나라당과 이념대결을 할 수 있는 양대 정당으로 키워낼 것인지, 아니면 호남의 동의 아래 한나라당과 연대나 통합을 할 것인지를. 만약 그가 호남의 동의 없이 혼자 '마이웨이'하는 것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자민련 신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민주당을 확인 사살하는 꼴이 될 것이다. 어설피 한·민공조는 '한화감의 구망(求亡)연대'가 될 것이다. 정치늬름이 아니길 바란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역 인재 유출 부추기는 열악한 '광주 경제'

취업 전문업체인 인쿠르트가 2004~2005년의 광주지역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용역·인력알선업이 전체 채용의 31.3%를 기록했고, 고졸 이상을 요구하는 공고가 5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광주지역에서 채용된 인력 가운데 3명 중 1명꼴은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이고, 절반 이상이 생산직 또는 현장직이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 하반기 채용을 실시하는 광주지역 대기업은 전체의 30.8%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53.8%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지역의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같은 인쿠르트의 분석은 광주지역의 채용시장 여건과 경제력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인재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광주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자리 부족은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부추기고 이는 결국 역대 우수기업의 유출로 이어져 지역 산업기반 붕괴와 지역 경제 몰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정부차원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지역 인재 및 기업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역 인재의 유출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인재 확보라는 점에서 결코 그냥 넘어갈 사안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기업, 대학 등 지역사회가 나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 구축, 교육 여건 개선 등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전략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우수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1개라도 더 창출하는 것만이 지역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대법원장 '발언 과문' 확산 바람직하지 않다

이훈총 대법원장의 검찰과 변호사단체 관련 발언 과문으로 법조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검찰총장인 21일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법원의 대응에 따라서는 사태가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흔히 사법 분야에선 관사와 검사, 변호사를 '법조 3륜(法曹三輪)'이라고 한다. 법조라는 마차는 세 개의 수레바퀴가 작동해야 굴러간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검찰과 변호사단체를 '보조기관' 운운하며 '법조 3륜'을 부정하고 '수사기록을 내던져야 한다'는 식의 도발적 발언을 한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법조계의 불신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사법사상 대법원장이 법원을 돌며 법관들을 상대로 한 훈시내용을 문제삼아 검찰과 변호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발언을 놓고 검찰과 변호사단체가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벌여서는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대법원장의 발언 과문은 우리의 사법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직설적이고 거칠기는 해도 법조계의 문제를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공판중심주의만 해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사법개혁 핵심과제 중의 하나다.

영장실사 등을 강화하도록 주문한 것도 사법개혁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과시하며 법원 내부의 강도높은 변화와 자성을 요구해왔다. 사법개혁은 법조계의 핵무기다. 숙원이지만 아직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장의 발언 과문은 '법조 3륜'이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 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無等鼓

들러리는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의 입장을 거들어주고 옆에 서는 사람이다. 로마 때 신부를 악귀로부터 지킨다는 미신에서 유래했고, 중세 이후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국어사전은 '주인 인물 주변에서 그를 돕는 사람을 알잡아 부르는 말'이라고도 해석한다.

송광은 광주 북구청장이 바로, 이 들러리 논란으로 구설수(口舌叢)에 올랐다. 북구청장은 최근 '제 한경쟁'으로 청장 에 비서를 한 명 뽑았다. 응시자 50여 명 중 특채된 사람은 송 청장의 처조카였다. 법적이나 절차상으로는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친인척의 '뒷배'를 봐주는 것도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게다.

한때, 공무원 노조와 언론이 비난하고 나선 것은 무슨 까닭인가? 문제는 '합격자를 내정해놓고 공채 형식을 밟았을 것'이라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정당성을 가장(假裝)한 게 되려 공채(公債)를 샀다는 이야기다. 단체장의 권한과 법 테두리 내에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조용히 끝날 일이었다.

송 청장은 '하차(暇疵) 없는 행정행위'라고 강변할지 모른다. 여론에 떠밀려 사표를 낸 여직원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채용 공고·접수·서류 전형·면접·합격자 발표·허울뿐인 요식행위(要式行爲)에 들어간 행정 비용은 얼마인가? '혹시나'하는 꿈에 부풀었을, 응시자들이 지출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보상하나?

자신이 들러리며 핫바 지임을 알았을 때, 그 '상대적 박탈감'은 또 어떻게 감내하나? 들러리 논쟁을 지켜 보면서, 실록(實錄)의 한 대목을 생각한다. 조선 중종(中宗) 13년(1518) 9월10일, 과거(文科館, 漢城試) 후 기록한 내용이다.

“...서로 번갈아 가며 추천하고 부정하게 끌어주어 부당(朋黨)을 만드는 것이 중상이 됐다. 조정의 관직을 자기의 사사로운 물건으로 여기고 있다(更相推舉 曲爲波引 朋比成習 以朝廷官爵 爲一己房之物) /정기대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들러리



기고

정연앙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날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한 날씨 정보를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욕구일 것이다.

기상예보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를 중부지방, 남부지방으로 구분하여 예보하였으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지역특성에 따라 전국을 53개 국지예보구역으로 나누어 지방별로 기상예보를 발표하였다.

특히 90년대 정보통신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인터넷과 이동통신전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함께하는 날

보 기능을 구현하였다. 또한 디지털예보는 기존의 도시군 단위의 예보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예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한반도를 동서 5km, 남북 5km 간격으로 바둑판 형태로 나누어서 가로 149개, 세로 253개로 총 37,697개의 격자에 대한 예보를 실시할 수 있다.

우리지역인 광주와 전남지방은 기존에 8개 국지예보구역으로 예보하던 것을 389개의 읍면동 단위로 구분하여 일기예보가 실시되는 것이다. 디지털예보를 동네예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구역의 세분화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의 세분화는 기존예보가 가지고 있었던 지점과 지점사이에 나타

일기예보가 달라진다

는 공백이 없어짐으로써 공공목적의 이익을 위한 국가 중요정책의 결정, 방재업무, 국가산업기반 조성에 이용이 가능하며, 민간 산업분야에서도 응용분야에 따라 물류, 농업, 산림, 레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날씨가 하늘의 뜻이라고 믿고 살던 옛날 조상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만 아니라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고 더 나아가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는 현재의 우리들은 매우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항상 부족한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디지털예보가 만드는 아닐 것이고 또한 시행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기상청을 믿고 기상청은 국민들을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날씨정보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지방 기상청장>

의료칼럼

김재민



얼마 전 도박 중독 빠진 40대 가장이 자식의 손에 죽음을 맞았다는 뉴스가 사회를 안타깝게 했다.

폭언을 견디다 못한 아들이 아버지와 심한 몸싸움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방안에 있던 주전자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때린 것이다. 이 아버지의 도박 중독은 지난 20여 년 전부터 화투·술놀이·온라인 포커 등 각종 도박을 섭렵하는 것은 물론 아들이 할 한 달 일해서 번 돈을 빼앗아 갈 정도로 고약했다.

최근 병원에 가족이나 본인의 도박중독 건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도박중독에 빠진 이들은 실직, 부채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당사자는 물론 사랑하는 가족에게

다. 이는 매우 높은 수치다. 국내에서 도박중독이 이처럼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첫째 그동안 음성적으로 모여서 이뤄지던 도박이 최근엔 인터넷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라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즘 주거지역을 둘러보면 최근 화제가 된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성인 오락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인간의 심성 가운데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으려 하는 사행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허술한 법망과 솜방망이식 처벌이 많은 도박 생산자와 수요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허용했다. 현재 국내 법적·사회적 환경은 인간의 사행성이 쉽게 발동되고 더 나아가 조

도박중독도 병입니다

만회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게 된다. 의학적 관점에서 도박중독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중독과 마찬가지로 한번 빠져들면 혼자 힘으로 헤어나오기 힘든 병이다.

병처럼 알코올중독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다. 돈을 따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뇌는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뇌와 동일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한스 브라이터 박사의 연구보고도 나와있다.

사람들이 도박의 해악을 알면서도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도박에서 돈을 따왔을 때의 희열 때문이다. 이것은 도박하는 사람에게 강한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흥분을 찾아서 더 자주, 더 위험한 곳에 내기를 걸게 된다.

또 인간의 인지구조는 따는 것은 값이 지각하지만 잃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도박중독자가 전체 인구의 약 9%라고 한

정되도록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도박 중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막고 더 퍼지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자치적으로 주거지역 안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점포가 생기는 것을 막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펼칠 수 있겠다.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산악회나 조깅회와 같은 모임에 들어가 등산이나 운동을 자주 하거나, 종교생활, 명상 등의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족과 주위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흥분을 알려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도박은 중독성 질환의 일종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박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문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남대병원 정신과 교수>

사고위험 많은 맨홀뚜껑 도로 포장때 높이 맞춰야

운전중에 도로보다 높게 설치된 맨홀 뚜껑 때문에 급히 브레이크를 밟거나 방향을 틀어 피해본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어떤 운전자들은 10~20cm높게 설치된 맨홀 뚜껑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기도 한다.

반대로 맨홀 뚜껑이 도로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도 있다. 운양동 고가도로 인근 주택가 맨홀 뚜껑은 도로보다 10cm이상 낮다. 운전자들은 도로 중앙에 꼭 끼진 맨홀을 피

하려다 이번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기도 한다.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무심코 걸다 맨홀 뚜껑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

도로 포장 작업을 할 때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맨홀 높이를 맞추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개선했으면 한다. <나운성·광주시 남구 봉선동

커피자판기 위생상태 엉망진창

며칠전 버스터미널 근처에 갔다가 커피가 마시고 싶어 인근 마트에서 내놓은 자판기를 이용했는데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다. 청소를 하지 않아 휴먼지는 물론이고 컵을 빼내는 플라스틱 문마저 떨어져 있어 등 한마디로 관리상태가 엉망이었다.

관리인이 자판기를 열어 들어낸 물통도 더러웠는데 관리인은 시커먼 걸레를 가지고 와 닦는 것이었다. "물통도 깨끗이 청소하고 걸레도 새 것을 사용하지 그러느냐"고

한 마디 했는데 "물이 뜨겁기 때문에 소독이 된다"고 했다. 도로변에 설치된 자판기의 경우 빗물은 물론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이 뿜어내는 매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자판기 외부만 형식적으로 점검할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물도 수검받아야 하고 내부 청결상태 등 소비자 위생과 직결되는 사항에 성의있게 점검해 주었으면 한다. <권운영·광주시 서구 처평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